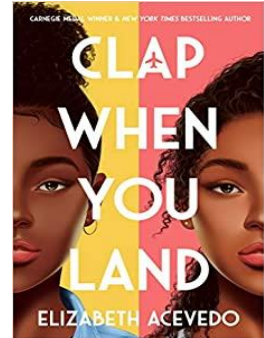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CLAP WHEN YOU LAND
가제 : 네가 내게 올 때는 힘껏 박수를
저자 : Elizabeth Acevedo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5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2019 년 카네기 메달 수상작이자 워터스톤 북 프라이즈 후보작인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POET X』의 저자의 신작
- * "가족의 비밀, 유해한 남성성, 사회 경제적 차이를 예리한 명료함과 솔직함으로 다룬 소설" - 「커커스 리뷰」

2001년 9 월 11일 테러가 일어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향하던 미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가 뉴욕 퀸즈에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사실 당시 무역센터 테러 사건이 발생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은 미국 내에서조차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뉴욕 내의 도미니카 공화국 공동체는 이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사고 여객기에 승선한 260명 전원이 사망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미국 거주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자들이었으며 뉴욕 내 도미니카 공화국 이민자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바로 그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자매 중 한 명인 카미노 리오스는 해마다 여름이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만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은 달랐다. 아빠가 도착하기로 한 날 카미노는 공항에 모여 울고 있는 사람들 속에 서 있었다. 한편 뉴욕의 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야하이라 리오스는 교장실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통해 아빠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비밀에 대해 알게 되고 이제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 형식을 활용해, 이민자들의 삶,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용서, 폐허 속에서도 피어나는 아름다운 유대에 관해 풀어낸 이야기이다.

카미노는 세상을 떠난 엄마와 미국에 있는 아빠 대신 자신을 키워주고 있는 이모와 솔라노와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이모마저도 암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카미노가 그녀를 돌봐주어야

했고 매달 아빠가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게다가 카미노가 살고 있는 곳은 잘 닦인 도로대신 더러운 진흙 밭으로 되어 있었고 집 근처에는 납치된 어린 소녀들이 강제로 일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이 즐지어 서 있었다. 카미노는 언젠가 미국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후 사랑스러운 이모와 다른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기만을 바랐다. 그리고 아빠가 드디어 오기로 한 날, 모범생인 카미노는 아빠를 놀래 켜주기 위해 공항으로 나갔다. 하지만 아빠가 도착하기로 한 비행기에 관한 정보는 공항 TV 스크린에 보이지 않았고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영영 울기 시작했다. 카미노는 그제서야 아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뉴욕에 있던 야하이라 역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소녀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 엄청난 슬픔에 빠지고 말았다.

야하이라는 사실 작년에 아빠가 엄마와 결혼 한 후 몇 달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한 증거를 발견했다. 야하이라는 그 날 이후 아빠에게도 마음을 닫아버렸고 체스도 그만 두었다. 하지만 사실 야하이라가 아빠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즈음 체스 신동인 야하이라는 체스 경기에 참여 했다가 지고 말았고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안에서 성폭력까지 당했는데 아빠는 야하이라가 당한 분노와 억울함보다는 야하이라가 경기에서 졌다는 사실에 대해 더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야하이라는 자신이 아빠와 화해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사실 때문에 더욱 큰 슬픔을 느꼈다. 한편 카미노는 자신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야하이라에게 연락했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후 야하이라가 보낸 답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자기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또 다른 가족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야하이라는 아빠의 일부이기도 한 카미노를 만나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고 자신은 한번도 가본적 없는 부모님의 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기 위해 엄마가 잠든 사이 신용 카드를 이용해 몰래 비자 신청까지 마쳤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드레에게만 이 사실을 말한 후 엄마에게는 카미노의 존재도, 여권 신청을 했다는 것도 다 비밀로 했다. 며칠 후 야하이라는 용기를 내 카미노에게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었다. 때마침 동네 또래 남자애인 엘 체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카미노는 그 사실 마저 잊고 야하이라를 처음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갔다. 그리고 야하이라는 카미노와 이모를 미국으로 데려오길 바랐다. 과연 두 사람은 서로의 바람대로 미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될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도 비슷한 점을 갖고 있는 두 자매의 슬픔과 분노, 복잡한 감정들을 시 형식을 이용해 섬세한 언어와 리듬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아세베도 (Elizabeth Acevedo)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인 THE POET X로 2019년 카네기 메달을 수상한 작가이다. 그녀는 또한 2018 년 National Book Award, The Printz Award , Boston Globe-Hornbook Award Prize, Pura Belpré Award에서 아동 청소년 문학으로 수상한 바 있다. 그녀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공연 예술 학사를,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목 : THE WILD WAY HOME
가제 : 집으로, 집으로
저자 : Sophie Kirtley
출판사: Bloomsbury Children's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1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모험/에세이



*** 아마존 베스트셀러 / 워터스톤즈 이 달의 책 / 석기 시대로 떠나는 모험과 가족, 용기에 대한 이야기**

*** “너무 좋아서 난 두번이나 읽었다.”- 『The Skylarks'War』의 저자, 힐러리 맥케이**

*** “이 스릴 넘치는 시간여행 모험에는 마법과 감동이 스며들어 있다.”-북셀러**

찰리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병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엄청난 절망에 빠졌다. 찰리는 슬픈 마음에 한 오래된 숲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슴가족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다. 곧 찰리는 그 순간 숲의 모습이 예전에 자신이 알던 숲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찰리와 미스터리해 휩싸인 석기 시대 소년이 만나 벌어지는 잃어버린 용기, 희망, 가족, 집으로 가는 길에 벌어지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6,000년 전, 한 여름 하트보이가 태어났다. 하트보이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생명체는 바로 수사슴 (hart)였기 때문에 하트보이의 엄마는 그를 ‘하트보이’라고 불렀고 언제나 사슴 이빨 목걸이를 하고 다니도록 했다. 그 사슴 이빨이 하트보이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트보이는 어느 날 그 사슴 이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6,000년 후 하트보이의 또래인 열두 살 소년 찰리는 곧 태어날 동생을 기다리며 마을 외곽 숲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이상한 돌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뿌리까지 남아 있는 이빨이었다. 찰리는 그것을 바로 ‘맨델 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자신만의 수집 목록 포함시키기로 했다. 찰리는 그 이빨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수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인 ‘찰리 메리엄’을 크게 외쳤고 나무 뒤편에서 그의 이름을 웅얼거리듯 내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겁에 질린 찰리는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돌아온 찰리는 그 이빨이 어떤 동물의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책을 뒤졌고 그 이빨이 사슴 이빨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 순간 찰리는 또 한 번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어색하게 발음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고 아빠의 독촉에 잠에 들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 찰리는 드디어 남동생 다라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찰리는 아빠가 엄마가 전화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고 다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찰리는 아빠와 함께 곧 엄마와 다라를 만나러 갔고 다라가 다른 아기들과 다르게 푸르스름한 피부와 작은 몸에 튜브가 장착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리고 말았다. 찰리에게는 아픈 아기인 다라의 존재가 너무나 낯설었고 다라가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가

울부짖기 시작하자 찰리는 웬지 모를 분노와 슬픔까지 느꼈던 것이다. 찰리는 그 길로 병원에서 뛰쳐나왔고 친구들과 놀던 숲으로 달려가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은신처 위에 숨었다. 하지만 찰리는 찰리의 아빠의 전화를 받은 친구들에게 들키고 말았고 병원에 와달라는 아빠의 말을 전달 받았다. 찰리는 순간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홀로 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 하지만 찰리는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생각하며 곧 병원으로 가기 위해 숲을 나서던 중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파란 깃털을 가진 새에게 손가락을 물렸고 겨우 정신이 들었을 때는 온 세상이 너무나 덥고 습하며, 주변 나무들이 너무나 진한 초록색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불안해진 찰리는 달리기 시작했고 곧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강물 위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물 속에 집어 넣은 채 동동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찰리는 긴 머리 때문에 처음 그 소년을 소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찰리가 그 아이를 물 속에서 끌어내 얼굴을 보니 그 아이는 분명 소년이었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놀란 찰리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의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찰리는 그 소년이 깡 말랐지만 다부진 체격에 이상한 동물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 했다. 게다가 소년은 앞 이마가 튀어나온 얼굴에 높은 광대, 넓은 코를 가지고 있었고 눈과 눈 사이는 멀었으며 발과 손의 크기가 비슷하게 납대대했다. 찰리는 계속해서 소년을 흔들며 깨웠고 마침내 그 소년은 눈을 떴다. 그는 이상한 영어로 자신을 죽이려고 강으로 밀어 넣은 것이 찰리인지, 찰리가 소년인지 소녀인지 물었다. 소년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듯 소리를 질렀고 갑자기 일어나 창살을 손에 쥐었다. 찰리는 그 소년의 차림과 행동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그가 혹시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다. 소년은 갑자기 다라의 울음 소리처럼 찢어지는 소리로 울부짖었고 온갖 새들이 그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소년은 아마도 '모스가'라는 것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찰리에게 '모스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왜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소년은 얼마 전 이 숲에서 찰리를 우연히 본 것을 기억해냈고 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찰리는 그제서야 얼마 전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부르던 그 이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이 소년이며 자신의 여동생 '모스가'를 찾기 위해 이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찰리는 자신이 선사시대로 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주변 강과 숲의 모습은 찰리가 알던 것과 비슷했지만 다리나 길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찰리는 하비라는 그 소년이 회복하는 것과 여동생을 찾는 것을 돕기로 하고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또한 찰리는 자신이 얼마 전에 주운 사슴 이빨이 하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물건임을 알게 되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던 두 소년이 만나 벌어지는 모험과 가족에 관한 몽클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소피 커틀리 (Sophie Kirtley)는 북 아일랜드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을 모래 언덕과, 건초 더미, 대서양 파도와 함께 보냈다. 미니 동물 농장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는 영어 선생님과 동화를 들려주는 작은 술집에서 일한 바 있으며 수상 경력을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녀의 첫 소설이다.